

2023
학년도
이감
인사
이트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이감의
9모 분석자료집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오답률 분석

오답률 TOP 10 - 언어와 매체 응시 기준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3	독서	3	62%	④	8%	13%	15%	38%	26%
2위	14	독서	2	62%	②	2%	38%	15%	19%	26%
3위	37	언어	3	61%	④	21%	5%	32%	39%	3%
4위	16	독서	3	60%	⑤	3%	13%	25%	19%	40%
5위	6	독서	2	44%	⑤	13%	5%	9%	17%	56%
6위	12	독서	2	43%	②	6%	57%	8%	10%	19%
7위	29	문학	2	42%	④	2%	10%	13%	58%	17%
8위	11	독서	2	41%	④	2%	13%	18%	59%	8%
9위	10	독서	2	39%	②	2%	61%	6%	12%	19%
10위	17	독서	2	36%	①	64%	1%	1%	2%	32%

(%는 반올림한 값)

- 01** 오답률 통계는 ‘언어와 매체’ 응시생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오답률 TOP 1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하며, 선택 과목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어 있는 쪽이 ‘언어와 매체’이기 때문이다.
- 02**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8문항, 문학 1문항, 언어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전형적인 구성이다. 다만 전체적으로 평균 오답률이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일단 오답률이 80%가 넘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시험 운용에 대한 부담은 이전에 비해 덜했을 것이다.

- 03**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는 6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해당 지문은 이번 시험에서 독서 영역 중에서는 난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향의 독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제 경향 분석]에서 살펴보자.
- 04** 사회 지문에서는 10, 11, 12, 13번 문항 모두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난도가 높은 지문이었고, 정확한 독해를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13번 문항은 전형적인 법학 지문의 <보기> 문항이었으며, 뒤에서 다룰 16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의 이감 모의고사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출제 방식으로, 수험생들은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05** 기술 지문에서는 14, 16, 17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17번 문항은 어휘 문제임에도 오답률이 비교적 높았는데, 최근에 평가원이 정확한 어휘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 중 하나가 오답률이 35% 정도였다. 14번은 ‘댐핑 인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였다면 쉬웠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판단이 꼬이기가 쉬운 문제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제 경향 분석]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16번은 13번과 마찬가지로 계산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로,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풀 수 있는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 06** 문학 영역에서는 현대소설의 29번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선지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세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엽적이라고 속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출제자의 시선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세부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 07** 언어 영역에서는 37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정답 선지의 판단이 상당히 까다롭다.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용언의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인 ‘어간’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장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어휘의 어간이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지 않았다면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이다. 올해 수능에서도 이렇게 <보기>에서 강조하여 묻는 개념[→ 여기서는 ‘선어말 어미’]이 아닌 다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선지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야만 한다.

II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서론’을 포함한 4개의 독서 지문이 1~17번에 배치되었다. 독서 지문은 비슷한 길이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수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이번 시험에서 평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출제를 지향했다. 제한된 길이의 지문 만으로도 각 선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경쟁 선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냥 쉬웠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해당 문항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문항은 등장하지 않았다. 주어진 경쟁 선지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충분히 고민해 본다면 매우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 특히 연계 양상이 뚜렷했다. 독서 영역의 세 지문 중 한 지문은 비연계로 출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세 지문이 모두 뚜렷한 연계 지문이었다. 다만 단순히 해당 개념을 접해 본 것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후술하겠지만 해당 개념을 시험의 형태로 접해 보고, 그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해 보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감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들을 단순히 흘려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실전 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지문

- 독서론 지문은 소재의 측면에서는 ‘독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나머지 독서 지문들과 다르지 않다. 출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첫 번째 지문은 ‘독서’에 대한 비교적 쉬운 독서 지문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인다.
- 주제통합형 지문의 경우 (가)에서는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대중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의 예시로 무엇이 있는지를 [→ 전위 예술]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반면 (나)에서는 그러한 ‘아도르노 미학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 시선에서 다루고 있다. ‘미메시스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메시스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과, 예술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 (나)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구성이다. 다만 이러한 구성이 반드시 수능에서도 반복된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구성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해 두는 것이 현명하겠다.
- 사회 지문의 경우 전통적인 법학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며, 기출과 연계 학습[→ 해당 소재는 특히 간쓸개 시즌3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했다.]을 충실히 하였다면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거나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문항에서 중요한 지점들을 고루 물어봄에 따라, 지문 이해에 비해 선지 판단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 기술 지문의 경우 수능에서의 출제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연습할 가치가 높은 양질의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집중력과 독해력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단3에서 ‘댐핑 인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어진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워서 14번에서 예상치 못하게 해매거나 틀린 수험생들이 유독 많았을 것이다. 작년 수능에서도 기술 지문이 짧게 출제되었는데, 길이만을 근거로 쉽게 풀릴 것이라고 방심하였다가 흐름을 놓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 오히려 선지 판단은 까다로워지기가 쉽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문항

- 전반적으로 정답 선지가 분명하다. 또한 문항의 설계를 보면 두세 개의 선지 중에서 해맬 수는 있어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예 감을 잡을 수 없는 문항은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 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도 않은 편이고, 문항에서 묻는 바도 지문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주어진 경쟁 선지가 왜 정답이 아닌지, 정답 선지가 왜 정답인지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수능에서도 반드시 이어질 것이므로, 선지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지금부터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02. 지문 분석

❖ [1~3] 독서론

- 독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인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인 독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개념들 간의 관계 요소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도약의 길이가 언제 짧아지고 길어지는지, 고정 횟수가 언제 적어지고 많아지는지를 파악했어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당연히 올해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 연계 양상 : 뚜렷한 연계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 [4~9] 예술 통합 :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점

- (가)에서는 ‘대중 예술에 대한 아도르노의 비판’을 설명하고 있다면, (나)에서는 그러한 ‘아도르노 미학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 시선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와 (나)가 대비되는 형태의 지문은 이제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최근에 이감ON 8차에서 이러한 구성의 통합 지문을 출제한 바 있다. (나)를 독해하는 시점에서 (가)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예술가의 주관 배제하고, 예술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83쪽의 핵심 개념소인 ‘아도르노의 미학’이 그대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 [10~13] 사회 : 상속과 유류분권

- ‘유류분’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리고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 때 그에 대한 유류분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학 지문으로, 문제 풀이에 필요하지 않은 대목이 없을 정도로 정보량이 상당하다. 연계 학습을 통해 ‘유류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더라도,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각 선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어려웠을 것이다. 즉 연계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념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 그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작년 수능 사회 지문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6월 모의평가 사회 지문 ‘이중차분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험 형태의 실전 훈련을 거쳐, 해당 내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익힐 필요가 있다.
- 연계 양상 : 수능특강 302쪽의 핵심 개념소인 ‘유류분권’이 그대로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3번 (오답률 62%)

* <보기> 설명

- 1) 갑이 피상속인, 을이 무상 취득자, 병이 상속인이다. 갑의 재산 중 A 물건만이 을에게 무상 처분되었고, 갑의 사망 후 병에게는 B 물건이 상속되었다.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 2) 상속인 병에게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으로 B 물건이 있다. 따라서 병이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유류분 - 이미 상속받은 이익[→ B 물건의 시가, 100]'에 해당한다.
- 3) 그렇다면 '유류분' 계산이 핵심이다. 병은 갑의 자녀이므로,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1/2만큼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이때의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결국 A, B 물건의 가치를 더한 만큼이다. 따라서 '(A 물건의 가치 + B 물건의 가치)/2'를 '유류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 4) 다만 A 물건의 가치는 '을에게 무상 처분한 시점'에는 300이었고, '상속 개시 시점'에는 700이었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A 물건의 시가는 본래의 취지대로 700으로 판단되고,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A 물건의 시가는 300으로 판단된다.
- 5) 따라서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100 + 700)/2 = 400$ 으로 판단된다. 즉 이때의 '유류분 부족액'은 여기서 100을 뺀 300이 된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100 + 300)/2 = 200$ 으로 판단된다. 즉 이때의 '유류분 부족액'은 여기서 100을 뺀 100이 된다.

* 정답 설명 : ④

- 1)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의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2) 유류분권자 병은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문단5에 따르면 지분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A 물건의 가치는 700이라서, 여기서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1/7$ [→ $100/700$] 지분이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 ② :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라서, 이때의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frac{3}{7}$ [$\rightarrow 300/700$] 지분이다.
- ③ :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의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 ⑤ :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A 물건이 아니라, 'B 물건'만을 가리킨다. B 물건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100으로 일정하다. B 물건의 시가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0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 [14~17] 기술 : 웹 페이지 정렬 기법

- 검색 엔진이 웹 페이지를 정렬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인 중요도와 적합도 중에서, 특히 '중요도'를 산정하는 랭킹 알고리즘이 비교적 단순화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지문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을 상술하기보다는, 핵심 원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형태에 가깝다. 따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링크 분석 기법'을 왜 사용하는 것인지, '댐핑 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댐핑 인자'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14번에서 정답 선지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 연계 양상 : 수능완성 32쪽의 핵심 개념소인 '랭킹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나, EBS 지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페이지 랭킹 기법'이 소개되어 실질적인 연계 체감은 낮았다. 랭킹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4번 (오답률 62%)

*** 정답 설명 : ②**

- 1)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이다. 이는 주어진 예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군가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확률이 20%라면, '댐핑 인자'는 80% [$\rightarrow 0.8$]가 되는 것이다.
- 2) 즉 '댐핑 인자'는 '(1 -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는 곧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과 같다.

3) 그러므로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랭킹 인자는 커진다.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① : 검색 엔진은 웹 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③ : 링크 분석 기법은 웹 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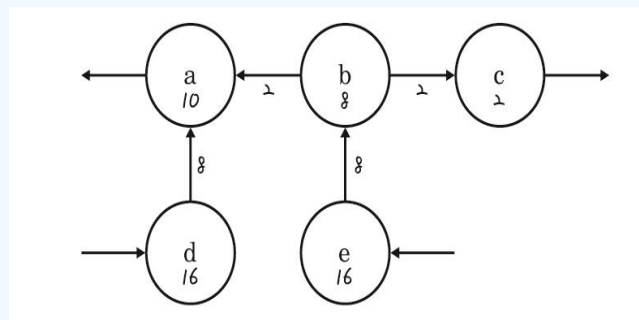
④ : 웹 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받는 값의 합이다. 물론 해당 웹 페이지가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자신의 값을 해당 웹 페이지에도 보내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값은 유지된다.

⑤ :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 알파벳순으로 웹 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리해 둔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그리고 중요도, 적합도 등을 반영하여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즉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난다면, 지문에서와 같이 중요도, 적합도 등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고난도 문항 해설 : 16번 (오답률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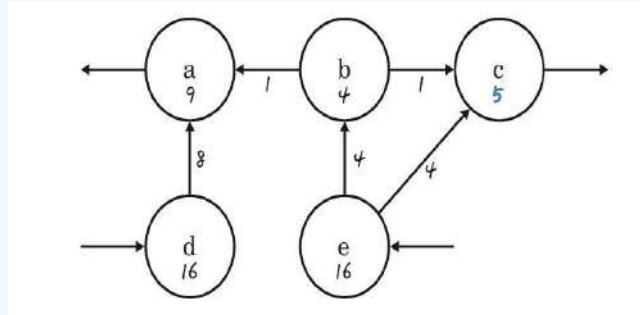
* <보기> 설명

주어진 그림에 ‘링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정답 설명 : ⑤**

1)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c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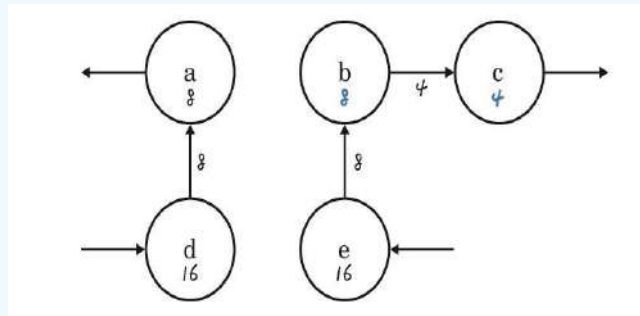
2)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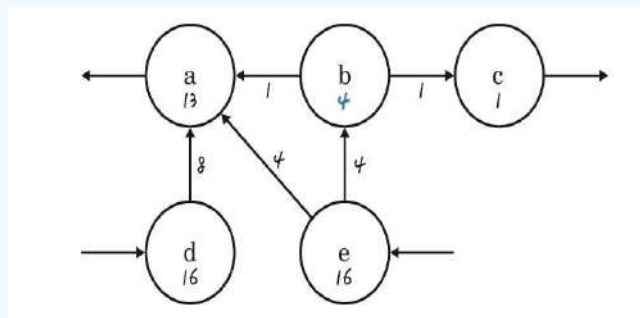
① : <보기>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의 중요도는 10이다.

② : a가 b로부터 받는 값은 2이고, d로부터 받는 값은 8이다.

③ :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다음과 같다. b와 c의 값은 여전히 다르다.



④ :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다음과 같다. b의 중요도는 4가 된다.



01. 출제 경향

❖ 총평

-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연계 출제 : EBS 교재에서 3개 작품이 연계 출제되었고, 박두진과 백석의 작품도 EBS 교재에 있으므로 이는 작가 연계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 「정수정전」의 경우에는 후반부가 EBS 교재와 동일하지만 전반부는 새로운 부분이 출제되었다. 소설의 경우에는 이처럼 연계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제 가능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 다각도로 공부해 두는 것이 좋겠다.
- 현대소설 비연계 출제 : 실제 수능에서도 소설 중 한 편은 비연계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낯선 소설이 출제되면 독해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리 측면에서 시험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인물 구도, 상황, 심리 파악 등 소설의 기본 독해 요소에 대해 실전 훈련을 충분히 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대 수필 출제 : 그동안은 고전 수필 출제가 많았으나 지난 6월 모의평가부터 현대 수필이 연달아 출제되고 있다. 그것도 모두 작가 연계 방식이다. 고전시가 두 작품과 한 세트가 되어 현대 수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 높은 난도의 29번 문항과 낮은 난도의 22번 문항 : 29번 문항은 소설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오답률이 문학 중에 가장 높게 나왔다. 인물의 심리는 특정 한 부분의 정보를 찾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틀린 수험생들은 계속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이다. 특히 이런 문제에는 수험생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작품에 충실하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22번 문항은 정답 선지의 ‘빛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찾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낮았다. 아마도 다른 선지들이 쉬워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정답을 잘 찾았을 것이다. 반면, 하나의 선지에 집착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느라 넘어가지 못한 수험생들은 결국 ‘빛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못 찾고 틀렸을 수 있다. 시험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 정선된 선지 구성 : 전체적으로 조금 난도가 쉬운 편이긴 하지만 독서와 마찬가지로 선지 구성의 완성도가 높다. 수능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에 좋을 듯하다.

❖ 출제 작품

분야	문항 수	작품	EBS 연계
고전소설	4문항	작자 미상, 「정수정전」	수능완성 p.230
현대시 + 수필	6문항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비연계(작가 연계)
		신경림, 「길」	수능특강 p.93
		백석, 「편지」	비연계(작가 연계)
현대소설	4문항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비연계
고전시가	3문항	이현보, 「어부단가」	수능특강 p.74
		박인로, 「소유정가」	비연계(작가 연계)

02. 작품 분석

❖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출제된 지문의 절반 정도가 EBS 교재와 겹친다. 다만 전반부는 새로운 부분이 출제되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뒤로 내용상 관련성이 매우 적은 이례적인 출제를 했다. <보기> 문항을 만들기 위해 작품을 짜깁기하듯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모의평가의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인물 수도 많고 서사도 복잡하여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것이나,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 독해가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항 해설 : 19번 (오답률 20%)

* 정답 설명 : ㉔

- 1) ‘진량’의 모함을 듣고, ‘황제’는 ‘정 상서’를 ‘절강’에 귀양 보내라는 명을 내린다.
- 2) ‘중관’은 이러한 ‘명을 듣고 정 상서의 집에 나아가 황명[→ 귀양을 가라는 비보]을 전’하게 된다.
- 3) 자신이 귀양 가게 된 것[→ 비보]을 들은 ‘정 상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한다. 이에 ‘사관’은 ‘황명’이 급하다며 ‘행장’을 차릴 것을 재촉한다[→ ㉓].
- 4) 즉 ㉓은 ‘사관’이 ‘정 상서’에게 귀양지로 갈 채비를 하라고 재촉하는 말이지, ㉓으로 인해 ‘정 상서’가 비보가 전해질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5)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④ : ㉓은 대원수[→ 정수정]가 호왕의 침공에 맞서 승리한 대목으로 ‘정수정’은 ‘황제’에게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 이에 황제는 ‘백관을 거느려 대원수를 맞아 치하’한 다음 ‘좌각로 평북후를 봉’하여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한다.
- ⑤ : ‘태부인’은 ‘장연’에게 전후사연[→ ‘장연’이 ‘정수정’에게 징계를 받은 것]을 듣고 통분하였지만, 노하지 말라는 원 부인과 공주의 말을 듣고 ‘정수정’에게 서찰을 보낸다.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였는데, ‘태부인’이 보낸 서찰을 보고[→ ㉓] ‘기빠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가게 된다. 이를 통해 ㉓은 ‘정수정’이 ‘장연’을 징계했던 일로 인한 걱정을 덜고 떠날 채비를 하게 되는 대목임을 알 수 있다.

❖ [22~27] 현대시 + 수필 :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 신경림, 「길」 / 백석, 「편지」

- 신경림의 「길」은 작품 연계 출제이며, 박두진과 백석의 작품은 작가 연계 출제이다. 신경림의 「길」은 연계 출제이긴 하지만, 작품에 반전이 두 번 있는 어려운 작품이어서 제대로 공부해 놓지 않은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수 있다. 박두진의 「별 - 금강산시 3」은 서사적 요소가 없어 구체적인 상황 전개를 떠올리기 어려운 작품이어서 작품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보기>와 선지를 읽으면서 비로소 시를 이해하는 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다. 현대 수필이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연이어 출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통상 고전 수필이 구조와 주제 의식이 명확해서 출제되기 쉬운데,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현대 수필을 출제하다 보니 <보기>에 최대한 확정적인 정보를 주고 출제한 측면이 있다.

문항 해설 : 23번 (오답률 18%)

* <보기> 설명

두 작품을 한꺼번에 다루는 <보기> 문항에 대해, 평가원이 이전까지는 (가)와 (나)를 한 문단에서 설명했었다면, 해당 문항에서는 <보기>를 두 문단으로 나누어 두 작품에 대한 독립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의 화자가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해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나)의 화자가 ‘밖’과 ‘안’의 대비를 통해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답 설명 : ④

- 1)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 이른 것이라는 점에서 <보기>의 ‘안’과 대비되는 것이다.
- 2) 즉,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 3)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은, 오히려 길이 밖이 아니라 안에 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② : ‘어젯밤’에 화자는 ‘동해안 어촌’에 ‘허다한 바다의 별들’이 ‘장엄히 ‘뿌리어’졌다’
[→ 주관적 인상]고 느끼고, ‘오늘밤’에 화자는 ‘산장’에서 본 ‘하늘의 별들’이 ‘꽃과
같이 난만하’다고 느낀다[→ 주관적 인상]. 즉, 화자는 자신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인
‘어젯밤’과 ‘오늘밤’ 바라본 별들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로, 이는 <보기>의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이다. 길은 ‘순순히’ 이들의
‘뜻’을 ‘좃지는 않’고, ‘벼랑 앞에 세워 낭패’를 겪게 하여[→ 좌절이나 고난을 안겨
주어]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려 한다.

❖ [28~31] 현대소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연계가 아닌 낯선 작품이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소설 감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작
품이었다. 사실 이 소설은 주제 의식이나 서술 기법 측면에서 어려운 작품인데, 출제된 지문
이 완결성이 높게 구성된 부분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 29번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다. ④번 선지는 이 소설의 핵심 지점을 건드리는 선지이며,
③번 선지는 세부 지점에서, ⑤번 선지는 주제 의식 차원에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선지
이다. 주제 의식에 부합하도록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읽어야 하는 소설인데, 이런 지점을 잘
살려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29번 (오답률 42%)

*** 정답 설명 : ④**

- 1) ‘나’는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는 ‘규칙’
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이 ‘규칙’은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
들이는 규칙’이므로 ‘폐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나’는 거드랑이 때문에 이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입장이다.
- 2) 이를 통해 ‘나’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시민’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다.

- 3)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나’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하면 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는 ‘나’에게 ‘페어플레이’는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목] 31번 문제의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라는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면,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진술은 작품 전체 맥락과도 어긋난다. 작품에서 ‘시민’은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자유가 억압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③ : ‘나’는 ‘저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 ‘나’의 고통은 ‘거리 < 뜰 < 방’ 순으로 심해진다고 할 수 있고,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 ‘나’는 ‘통행 제한의 시간’에 밤 산책을 하던 중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면서,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자신은 ‘혁명가’ 혹은 ‘간첩’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경관’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행동을 하는 자신을 ‘혁명가’나 ‘간첩’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라는 서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2~34] 고전시가 : 이현보, 「어부단가」 / 박인로, 「소유정가」

- 이현보의 「어부단가」는 연계 출제된 작품이며, 박인로의 「소유정가」는 작가 연계로 출제된 작품이다. 다만 「소유정가」는 EBS 교재에 실린 박인로의 「사제곡」과 내용이 흡사해서 기시감이 많이 드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보기〉 설명의 ‘은자로서의 어부’는 고전시가 장르에서 그동안 많이 출제된 소재로 작위적인 느낌이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한 출제라고 할 수 있다.
- 34번의 경우에 오답률이 제법 높았다.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전체 주제와 세부 정보 간의 연결 고리를 잘 확인하며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⑤번 선지는 헛갈릴 수 있는 선지라고 할 수 있다.

문항 해설 : 34번 (오답률 36%)

* 〈보기〉 설명

두 작품 모두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서의 ‘어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보여 주는 ‘어부 형상’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 | |
|--|
| (가)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 → 유유자적한 삶
(나)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감 → 흥취 있는 삶 |
|--|

* 정답 설명 : ②

- 1) (나)의 화자는 ‘추풍’을 반가워하며 ‘벗을 불러’ ‘어촌에 내 놀이[-> 뱃놀이]를 가고 있으므로,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2) ‘강풍’은 ‘귀범을 재촉하는 듯’ 화자의 배가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이다. 이때 화자는 ‘강풍’으로 인해 ‘연잎배 탄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풍’ 또한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인다고 한 것은 ‘강풍’으로 인해 배가 빨리 나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흥취의 대상이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갔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많이 고른 오답 설명**

- ⑤ : (가)의 ‘어부’는 ‘일엽편주를 만경파에 띄워 두고’ 유유자적하게 ‘인세’를 잊고 ‘일반 청의미[→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를 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반면 (나)의 어부는 ‘벗을 불러’ 뱃놀이를 하며 물고기를 잡아 술과 함께 실컷 먹고 즐기는 상황을 ‘동파 적벽유’에 견주어 노래하고 있다. 즉 (가)의 화자는 유유자적하게 낚시를 하며 ‘청하에 밥을 싸고 녹류에 고기 꿰어’ 먹는 모습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자린은손 수없이 잡아내어 / 연잎에 담은 회와 향아리에 채운 술을 / 실컷 먹’으며 벗과 함께한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총평

- 올해 9월 모의평가의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텍스트 분량도 짧고 정보의 밀도도 높지 않은 데다 함정처럼 장치한 문항도 없어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 9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의 출제 형식은 ‘화법’ 3문항, ‘작문-화법 통합’ 5문항, ‘작문’ 3문항이라는 최근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화법(35번~37번)’에서는 ‘발표’가 출제되었는데, ‘발표’는 수능과 모의평가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식이다. ‘작문-화법 통합(38번~42번)’에서는 ‘학생의 초고-대화’가 출제되었는데, 학생들이 대화나 회의, 토의를 하고 글을 작성하는 구성은 수능과 모의평가 ‘화법-작문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식이다. 다만 9월 모의평가에서는 초고가 먼저 등장하고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 초고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을 뿐이다. ‘작문(43번~45번)’은 학생의 생각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작성하는 구성인데, 이 역시 ‘작문’에서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 형식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 EBS 교재와의 연계는 ‘화법’에서 ‘종자’라는 소재가 연계되었다. 하지만 EBS의 내용은 종자 산업의 중요성과 종자 주권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9월 모의평가 ‘화법’에 출제된 내용과는 많이 다르다. ‘작문-화법 통합’에서는 ‘소비’라는 소재가 연계되었는데, EBS의 내용은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발표여서 9월 모의평가 ‘작문-화법 통합’에 출제된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에 늘 말해 왔듯이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 [35~37] 화법(발표) : 종자 금고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발표’가 또다시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은 발표에서의 말하기 방식(35번), 시각 자료 활용(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 세트에서 익숙한 구성이었다. 지문과 문항 모두 평이한 수준이라 문제 풀이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 36번 (오답률 13%)

* 정답 설명 : ④

발표에 활용된 시각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발표 과정에서 화면[→ ㉠]을 보여 주며, ‘화면 속 건물 아래쪽에 보이는 공간이 저장고가 있는 지하의 모습인데,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에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6번 문항에 제시된 [화면 3]은 <우리나라 종자 보관 시설>로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설명

- ①, ② : [화면 1]은 나무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위기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매년 나무의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①]나 멸종 위기의 나무 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 ②]가 아니다.
- ③ : [화면 2]는 전체 식물 중 40%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 우려 수준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지, 전체 멸종 우려 종 중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다.

❖ [38~42] 작문-화법 통합(비평문-대화) :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 학생이 작성한 ‘(가) 초고-비평하는 글’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학생들의 ‘(나) 대화’로 구성된 ‘작문-화법 통합’ 세트이다. ‘통합’ 세트에서 ‘글쓰기(작문)’를 하고 수정을 위한 ‘대화(화법)’를 하거나, ‘대화(화법)’를 나누고 ‘글쓰기(작문)’를 하는 구성은 ‘작문’과 ‘화법’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지만 달라질 뿐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반복 출제되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대화(회의, 토의)’와 ‘글쓰기’였으며, 지난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모두 ‘대화’가 출제되었다. 때문에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대화(회의, 토의)’에서의 말하기 방식에 관한 선지들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평하는 글쓰기’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대화-비평문’의 형식으로 출제된 바 있다.

* 정답 설명 : ②

(나)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방안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가)의 ‘처음’ 부분에서는 ‘국내 팬 상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200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나)에서 ‘학생 1’은 ‘팬 상품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해의 팬 상품 시장의 규모를 밝혀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가)의 ‘처음’ 부분에는 ‘2014년도 국내 팬 상품 시장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 (나)에서 ‘학생 2’가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볼게.’라고 말하자 ‘학생 1’은 ‘그러면 제목도 그에 맞게 수정 부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목’을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목에 ‘해결 방안’ 대신에 팬 상품 소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 ③ : (나)에서 ‘학생 3’은 ‘2문단은 충동적 소비를 다루고 있잖아. 그러니 마지막 문장의 일회성 소비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중간’ 부분의 ‘일회성 소비’를 ‘과시적 소비’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충동적 소비’로 교체해야 한다.
- ④ : (나)에서 팬 상품 소비가 과소비로 이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중간’ 부분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 (나)에서 ‘학생 3’은 ‘마지막 문단에 글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으니 삭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끝’ 부분의 마지막 문장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삭제해야 적절하다.

❖ [43~45] 작문(정보를 전달하는 글) : 이름 짓기의 효과

- ‘작문’ 세트에 자주 출제되는 ‘학생의 생각이 글에 구체화된 내용(43번), 마지막 문단 쓰기(44번), 자료 활용(45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작문’ 세트에서는 ‘자료 활용’ 문항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문항 해설 : 45번 (오답률 9%)

*** 정답 설명 : ②**

(나)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자료 1]을 보면 <‘등급 외 사과’와 ‘보조개 사과’의 이미지 비교>의 영양소 항목에서의 점수 차이가 0.8로 가장 작았다. 이처럼 영양소 항목에서의 점수 차이가 작다는 점을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만일 ‘등급 외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의 점수가 높다는 점을 바탕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다고 서술했다면, 비록 점수 차이가 작았더라도 적절한 답이 됐을 수는 있다.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01. 언어

❖ 총평

- 언어는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에서 출제되었으며 담화 및 의미론, 중세 국어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 언어의 난도는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정도로 출제되었다.
- 올해 9월 모의평가 '언어'는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출제되었다.
- 35번과 36번의 경우, 합성 용언의 분류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라는 다소 익숙한 개념에 대해 다루었다. 이에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했다.

고난도 문항 해설 : 37번 (오답률 61%)

* 정답 설명 : ④

‘갈증이 짝 가셨겠구나’의 ‘가셨겠구나’는 ‘가시+-었+-겠+-구나’로 분석된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으므로 ‘-구나’는 어말 어미인 종결 어미에 해당하고, ‘-었-’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한다.

* 오답 설명

- ① : ‘즐거우셨길’은 ‘즐거우+-시+-었+-기+ㄹ’로 분석된다. 여기서 ‘-시-’와 ‘-었-’은 선어말 어미에, ‘-기’는 앞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ㄹ’은 명사형 전성 어미와 결합한 조사이다.
- ② : ‘됐을’은 ‘새+-었+-을’로 분석된다. 여기서 ‘-었-’은 선어말 어미에, ‘-을’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 ③ :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번거로우+-시+-겠+-지만’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시-’와 ‘-겠-’은 선어말 어미에, ‘-지만’은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 ⑤ : ‘다다른’은 ‘다다르+-ㄴ’으로 분석된다. 선어말 어미는 쓰이지 않았고, ‘-ㄴ’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02. 매체

❖ 총평

- 9월 모의평가의 ‘매체’는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난이도는 지난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동안 ‘매체’의 경우 ‘언어-매체 통합’ 세트의 ‘매체 언어 표현’ 문항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 오답률이 높았는데, 9월 모의평가는 지금까지의 시험 중에 가장 쉽게 출제되었다. 덕분에 수험생들이 느끼는 매체의 체감 난도는 더욱 낮았을 것이다.
- 9월 모의평가 ‘매체’의 출제 형식은 ‘언어-매체 통합’ 3문항, ‘매체’ 3문항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최근의 출제 형식인 ‘언어-매체 통합’ 4문항과 ‘매체’ 2문항 형식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세트별 문항 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9월 모의평가의 ‘언어-매체 통합(40번~42번)’ 세트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전자책’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새롭다. 그리고 여기에 매체 과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광고의 효과(혹은 설득 전략)’를 주제로 하여 ‘매체’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적절히 출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EBS 교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문은 없었다. EBS 교재에 ‘졸업식 축하 영상 만들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 ‘매체(43번~45번)’ 세트의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한 ‘영상 제작’과 다소 연계되었다. 지난해부터 출제된 ‘매체’ 과목에서 EBS 연계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큰 의미가 없다.

❖ [40~42] 언어-매체 통합(전자책) : 버스 광고의 효과

- 그동안은 신문이나 방송 등 보도 매체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매체를 생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이번 ‘언어-매체 통합(40번~42번)’ 세트에서는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선보이며, 매체(전자책)의 특성 파악, 광고 매체의 전략 이해, 매체의 언어적 특성 등이 출제되었다. 지문과 <보기>에 담긴 정보의 밀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험생들의 집중이 필요했겠지만, 막상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문제 풀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문항 해설 : 41번 (오답률 18%)

* 정답 설명 : ②

(나)의 [화면 2]에서 ‘버스 정류장 광고, 지하철역 광고, 버스 내·외부 광고 등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메모 2’에서 정류장 광고와 버스 내·외부 광고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반복 노출 효과의 유무라는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 ②번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 ‘메모 1’에서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구 고등학생들이 좋아할 공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광고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나)의 [화면 2]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 ③ : ‘메모 2’에서 ‘○○구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10번이나 12번 버스’를 선택한 것은 (나)의 [화면 3]의 ‘목표 수용자들의 주 이용 노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 ④ : ‘메모 3’에서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 버스 내부의 모니터 영상 광고를 이용’하려는 것은 [화면 3]의 ‘목표 수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 ⑤ : ‘메모 3’에서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홍보하기 위해 버스 외부의 옆면과 뒷면에도 광고를 게시’하려는 것은 [화면 3]의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버스 외부 광고의 목표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버스 광고의 장점이다.’라는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 [43~45] 매체(교내 방송-휴대 전화 메신저) :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한 영상 제작 계획

- 학생들이 매체(휴대 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대화를 나눈 후 이를 바탕으로 매체를 생산하는 문제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나) 휴대 전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게 된 계기가 되는 ‘(가) 교내 방송’ 매체를 등장시켜 이 두 매체 간의 특성을 비교하게 하고, ‘(나) 휴대 전화 메신저’ 대화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체(43번~45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모두 평이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45번 문항에서 약간의 함정 요소를 만들어 둔 탓에 지문을 대충 읽고 넘긴 일부 수험생들은 실수하기 쉬웠을 것이다.

문항 해설 : 45번 (오답률 16%)

*** 정답 설명 : ①**

‘영상 제작 계획’에서는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나)의 ‘상우’의 후반부 발화를 보면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네가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빼고 찍자.’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①번 선지의 영상 제작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상우’의 전반부 발화인 ‘그럼 첫 장면으로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걸어가는 네 모습을 꼭 이어서 찍을게.’라고 한 부분만을 기억했다면 정답을 놓쳤을 수 있다.

*** 오답 설명**

- ② :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고 한 ‘상우’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 (나)에서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고 한 ‘상우’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 (나)에서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민지가 사연으로 신청했던 노래의 제목을 그 안에 적어 놓자.’라고 한 ‘보미’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장면을 넣자. 영상 제목과 어울리게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고 한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화면에는 그 말이 한 문장으로 보이도록 하면 어때? 자막은 내가 넣을게.’라고 한 ‘보미’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감 연계 양상

독서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예술 통합 [4~9]	아도르노의 대중 예술 비판과 아도르노 미학의 한계점	수능특강 p.83 (이감 중요도 AA)	2022 시즌1 간쓸개 04 2022 시즌3 간쓸개 01 / 02 / 05 2022 간쓸개 에센셜 01 / 02
사회 [10~13]	상속과 유류분권	수능특강 p.302 (이감 중요도 A)	2022 시즌3 간쓸개 03 2022 간쓸개 에센셜 02
기술 [14~17]	웹 페이지 정렬 기법	수능완성 p.32 (이감 중요도 A)	2022 이감 시즌6 2차 (9모 이전 출제)

문학

분야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정수정전」	수능완성 p.230 (이감 중요도 AA)	2022 이감 시즌5 1차 2022 강대 3차 2022 이감ON 8차
현대시 + 수필 [22~27]	(가) 박두진, 「별 - 금강산시 3」 (나) 신경림, 「길」 (다) 백석, 「편지」	작가 연계 수능특강 p.93 작가 연계 (이감 중요도 A ~ B)	2022 이감 시즌5 7차
현대소설 [28~31]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비연계	
고전시가 [32~34]	(가) 이현보, 「어부단가」 (나) 박인로, 「소유정가」	수능특강 p.74 (이감 중요도 A) 작가 연계	2022 이감 시즌1 2차 2022 이감 시즌5 5차 2022 시즌3 간쓸개 01 2022 시즌4 간쓸개 02 2022 시즌5 간쓸개 05 2022 간쓸개 에센셜 02

화법과 작문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종자 금고 (발표)	수능특강 p.28 (종자 주권)	2022 이감 시즌4 2차 2022 이감 시즌5 2차/6차
작문-화법 통합 [38~42]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 (비평문 - 대화)	수능완성 p.90 (소비 심리학)	2022 이감 시즌4 1차 2022 이감 시즌5 1차/4차/5차/6차
작문 [43~45]	이름 짓기의 효과 (정보를 전달하는 글)	비연계	2022 이감 시즌5 5차

언어와 매체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형태론/통사론 [35~36]	합성 용언의 분류 필수 부사어	수능특강 p.67 수능완성 p.154	2022 이감 시즌1 1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형태론 [37]	어미의 기능과 종류	수능완성 p.96	2022 이감 시즌5 3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통사론 [38]	부정 표현	수능완성 p.259	2022 이감 시즌5 4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음운론 [39]	음운 변동	수능특강 p.106	2022 이감 시즌4 2차
언어-매체 통합 [40~43]	버스 광고의 효과 (전자책)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 1차/3차
매체 [44~45]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한 영상 제작 계획 (교내 방송-휴대 전화 메신저)	수능특강 p.149 (졸업식 축하 영상 만들기)	2022 이감 시즌2 1차/2차 2022 이감 시즌4 1차/3차/5차 2022 이감 시즌5 2차/4차/6차

독서 : 통합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에서는 ‘아도르노’가 생각한 예술의 지향점을 반영한 사례로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다루었고, 간쓸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시즌3 간쓸개 01
2022 간쓸개 에센셜 02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현하게 하는 매개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는 각 시대의 체험을 담고 있는 음악적 재료를 통해 음악 형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협화음을 주제의 재료로 삼는 고전적 음악은 20세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현대 사회에는 고립되고 무기력한 개인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고전적 형식을 따르는 음악은 이러한 실상을 외면하고 가상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무조 음악과 그 주제 구성 방식을 높이 평가하였다. 쇤베르크는 으뜸음을 기준으로 선율과 화음을 구성하는 조성 음악에서 벗어나 12개의 음을 동등한 빈도로 배열한 선율인 음렬을 활용하는 12음 기법을 구사하였으며, 특정 음렬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보여 주면서도 완전 협화음 관계에 있는 음들이 나란히 배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인위적 조화 대신 파편화된 음의 세계를 보여 주었다. 대중들은 익숙지 않은 진행에 냉소적 반응을 보였지만, 아도르노는 불협화음의 연속에서 느껴지는 긴장, 불안감 등이 현대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므로 불협화음은 오늘날 훌륭한 음악적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화음의 질서가 신이 내린 자연법칙인 것이 아니며 본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불협화음이 음악의 영역에서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서 : 통합 — 부수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에서는 ‘아도르노’의 미학을 비판하기 위해 ‘미메시스’ 개념과 ‘세잔’의 작품을 다루었고, 간썰개에서도 해당 개념을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시즌1 간썰개 04
2022 시즌3 간썰개 02 / 05
간썰개 에센셜 01 / 02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 박탈한다. 실수로 적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베냐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현장성과 유일성으로 인해 소수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던 예술 작품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아가 예술의 아우라를 무너뜨린 사진이 역설적이게도 예술적 상상력의 일종인 ㉦ 미메시스 능력을 사람들에게 일깨웠다고 보았다. 미메시스란 유사성에 기초한 ㉧ 모사나 모방을 뜻하는 것으로, 그 능력은 자신과 상관없는 대상과 자기 사이에 유사성을 만들어 내는 힘을 말한다. 베냐민 사진은 대상에 근접하여 그 일부를 확대해 담을 수 있으며 평상시 보기 힘든 방향을 따라 렌즈를 놓음으로써 대상의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사진이 **미메시스** 능력을 되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회화 작품과 달리 이렇게 우리의 일상적 시선에서 벗어난 구도로 대상을 포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의 피부를 근접하여 촬영하면 그것이 피부라는 점을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 형상이

선이나 면, 색깔, 도형 등 조형적 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추상 미술은 흔히 그 무엇에도 근거를 두지 않고 자율적이면서도 무질서하게 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추상 미술 역시 어떤 ㉩ 원상(原象)을 비추어 ㉪ 가상(假象)을 만드는 전통적인 예술 원리인 **미메시스**로 설명할 수 있다. 예술가가 의존했던 유무형의 모델이나 그가 품었던 관념이 일종의 원상이고, 그에 기대고 의존하는 가상이 곧 예술 작품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구상 미술이었다.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에 가장 근접했던 시도로는 인상주의에 공감하면서도 실재에 대한 모방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달리 보이는 사물의 표면적 인상과 더불어 그 이면의 사물 자체, 즉 본성까지 드러내야 한다고 본 **세잔**의 작품 활동이 있다.

세잔은 색채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무엇보다 대상이 지닌 견고한 형상을 놓치려 하지 않았다. 그는 ㉫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인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눈앞의 실체와 달리 빛의 방향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비춘다고 가정하였다. 빛이 한쪽에서만 비추면 반짝이는 빛을 묘사하는 색채로 인해 그 한쪽의 윤곽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대상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개별 대상들이 근본적으로 공이나 원통, 원뿔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고, 사람의 머리는 공, 모자와 팔뚝 등은 원통의 형태를 감안하여 실제보다 조금 단순하게 그렸다. 그런데 그

독서 : 사회 — 중심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에서는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해 다루었고, 간쓸개에서도 해당 제도를 설명하면서 ‘유류분 부족’에 대해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유 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 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frac{1}{2}$ 만 보장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무상 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뉘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2022 시즌3 간쓸개 03 2022 간쓸개 에센셜 02

상속받을 권리인 상속권은 자녀나 손자와 같은 직계 비속이 있을 때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만 가지며, 직계 비속이 없을 때에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과 배우자만 갖는다. 형제자매는 ④ 이들 모두가 없을 때에 갖는다. 다만 개인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고, 사망 후의 상속에 대해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상속권을 지닌 자인 상속인 중의 일부나 제3자에게만 상당량이 상속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다른 상속인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지라도 상속인이 일정량을 보장받도록 하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전체 상속액 중 이들 공동 상속인 각각이 받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유언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⑤ 법정 상속분을 따른다. 이에 따르면 공동 상속인들의 분배 비율은 균등하게 하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배우자에게만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할당한다. 예컨대 상속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두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면 자녀는 각각 1억 원씩, 배우자는 1억 5천만 원을 할당받는다. 유류분을 통한 보장은 피상속인이 유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로 정해진다. 법정 상속분이 1/5인 직계 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1/10인 것이다. 유류분액만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이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액을 산출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기초 재산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초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즉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에서 상속될 채무를 차감하고 이미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 것이다. 이때 가산되는 증여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정되지만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시킨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은 기초 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실제로 상속받은 액수에서 상속 채무 분담액을 빼고 자신이 받은 증여액을 더한 것이 유류분액에 못 미치면 **유류분 부족**에 해당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행사되면 ⑥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증

독서 : 기술 — 부수 소재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에서는 ‘랭킹 알고리즘’ 중에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원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적합도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중요도는 웹 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웹 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 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 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뉜다. 즉 A의 값이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두 웹 페이지에는 각각 2가 보내진다.

하지만 두 웹 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에 댄핑 인자를 곱한 값이다. 댄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 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으로 1 미만의 값을 가진다. 댄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댄핑 인자는 0.8이고 두 웹 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웹 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의 값이 각 웹 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웹 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 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 페이지를 찾는다. ㉡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된 웹 페이지의 수, 웹 페이지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진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 페이지의 수가 적을수록, 현재 웹 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 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다.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 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2022 이감 시즌6 2차

크롤러라 불리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생성, 수정, 삭제되는 수많은 웹 페이지 문서들을 무차별적으로 찾고, 검색 엔진은 그 문서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다. 데이터베이스는 각 문서를 구별하기 위한 ‘ID’와 ‘내용’, ‘주소’로 ㉢ 구성되며, ‘주소’를 제외한 예시는 표와 같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ID	내용
1	갈색 여우와 갈색 강아지
2	귀여운 갈색 강아지
3	갈색 여우와 귀여운 강아지

㉣ 출력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으면 문서가 많고 내용이 길수록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검색 엔진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 정방향 색인이나 ㉥ 역방향 색인을 만든다.

정방향 색인은 ‘ID’, ‘내용’의 항목만 유지하되, 각 행에서의 ‘내용’을 단어의 열거 형태로 바꾼 목록이다. 단, 단어를 ‘원형’으로 변형하여, 가령 ‘여우와’는 ‘여우’로, ‘귀여운’은 ‘귀엽다’로 바뀌되 각 원형은 중복을 피해 해당 행에 한 번만 기록한다. 검색어도 원형으로 바뀌어 검색되므로, 그렇게 해야 ‘귀여운’을 검색했을 때 ‘귀여워’가 포함된 문서도 결과로 ㉦ 산출되어 검색 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방향 색인에서 문서 ID 1의 내용은 {갈색, 여우, 강아지}가 되고, ID 2는 {귀엽다, 갈색, 강아지}가 된다. 이렇듯 정방향 색인은 각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두 문서 간에 공통된 원형이 많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는 기준에 따라 검색 결과 중에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묶어서 보여 주는 데에 활용된다. 또한 검색어가 여러 단어 일 때에 그와 일치하는 원형이 많이 포함된 문서를 먼저 보여 주는 등 보다 유용한 검색 결과를 얻는 데에도 활용된다.

문학 : 고전소설 — 작품 적중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정수정전」을 공통으로 다루었음
- 평가원 문항에서는 핵심적으로 다루었으나 지문에서는 소략하게 제시된 내용을, 이감 모의고사에서는 지문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문제화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강대 3차 / 이감ON 8차
2022 이감 시즌5 1차

차설. 장연이 기주에 이르러 모친 태부인 뵈옵고 전후사연을 고하되 태부인이 듣고 통분 왈,

“너를 길러 벼슬이 공후에 이르니 기쁨이 측량없던 차에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옥을 보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오.”

장연의 다른 부인들인 원 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저 사람 또한 대의를 알아 삼가 화목할 것이니 이제는 노하지 마소서.”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이에 시녀를 정하여 서찰을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이때 정수정은 **전쟁에서 장연 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하더니 시비 문득 아뢰되 기주 시녀 왔다 하거늘 불러들여 ㉠ 서찰을 본즉 태부인의 서찰이라. 기뻐 즉시 회답하여 보내고 익일에 행장 차려 갈새, 홍군 취삼으로 봉관 적의에 명월패 차고 수십 시녀를 거느려 성 밖에 나오니,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에게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함에, 태부인이 지난 일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니, 정수정 또한 태부인을 지성으로 섬기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원수 더욱 항복받고자 하는 뜻이 강해지매 짐짓 꾸짖어 왈, “그대는 사세를 모르는도다. 국가의 중임을 맡으매 그대는 내수하이오 그대 임의로 범법하였은즉, 어찌 부부의 의를 생각하여 군법을 착란케 하리오? 그대 비록 나를 하찮게 여기나, 나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무사를 재촉하는지라. 장 후 이런 지경에 이르자 대답할 말이 없으며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가로되, “수만 석 군량을 육로로 운반치 못하여 강으로 운반하매 순풍을 만나지 못하여 자연 더더진 것이니, 어찌 홀로 내 죄라 하리오?” 한대, 제장이 또한 사세 그러하다며 간절히 말리거늘, 원수 오래 침묵하다 왈, “명령을 어긴 죄 작지 않되 두루 낮을 보아 용서하나, 그저 두지는 못하리라.” 하고, 무사를 명하여 곤장을 치라 재촉하여 십여 장에 이르러 분부하여 끌어내더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장 후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린 후 물러 나와, ㉡ 정 후가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들여 무수히 때린 뒤에 죽이고자 하거늘, 공주와 원 부인이 힘써 말려 겨우 그치니라. 이후로부터 장 후가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아침저녁 왕 부인 문안 때에 만나도 남 보듯 하니라. 정 후가 몹시 불쾌하나 장 후의 냉대를 마음에 거리끼지 않더니, 일일은 중당에서 장 후를 만나자 왈,

“㉢ 군후가 일개 회첩*의 일로써 저를 깊이 원망하시니, 이는 군자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 아니지 않나 하나이다.”

장 후가 대로하여 왈,

“그대 한갓 공후의 작위를 믿고 여자로서 지아비를 공경하는 도리가 없어 감히 지아비의 애첩을 죽이기까지 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데 없으니, 이것이 가히 온순한 부인의 덕인가?”

정 후 분하여 눈물을 머금고 왈,

“내가 부모 남기신 말씀을 저버리지 못하고 또한 황은(皇恩)을 받들기 위하여 옛 약속을 지켜 부부가 되었으나,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받아들이어리오?”

하고 즉시 외당에 나가 진시회를 불러 분부하되,

“내 이제 봉읍인 청주로 가려 하나니 군마를 대령하라.”

하고, 이에 안채에 들어가 왕 부인에게 하직을 고하니라.

- 작자 미상, 「정수정전」 -

문학 : 고전소설 — 선지 적중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가문의 며느리라는 역할과 관련한 갈등을 공통으로 묻고 있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수정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자,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이고,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지녀야 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다. 정수정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세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역할에 충실하며 다양한 능력과 덕목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된다.

- ① '진량의 귀양지가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묻는 '대원수'의 발언에서, '진량'을 찾아 부친의 한을 풀어 주려는 '정수정'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② '제상을 차려 부친께 제사 지내'는 '대원수'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효녀로서의 소임을 수행하여 죽은 부친의 넋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장연'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육을 보고 돌아'왔다며 통분하는 '태부인'의 모습에서, '태부인'은 '정수정'이 아내의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연' 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의 모습에서, '정수정'은 군대를 통솔했던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군.
- ⑤ '한복'의 '호위'를 받으며 기주로 가서 '태부인에게 예'하는 '정수정'의 모습에서, 국가적 영웅의 면모를 유지하는 '정수정'이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군.

2022 강대 3차
2022 이감ON 8차

30.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수정전」은 비범한 면모를 지닌 여성 영웅의 활약상을 다룬 작품입니다. 정수정은 용맹한 장수로서 국가적 차원의 신뢰가 공고한 인물임에도 가부장제하의 가정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인물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다시 장수로서 전장에 나서게 된 정수정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강제로 소환하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정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에게는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보입니다.

- ① '내 머리를 베어 가지고 돌아가 공을 세우라'라는 원수의 말은, 자신을 해치려는 이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용맹한 장수다운 주인공의 배포와 기백을 보여 주고 있어.
- ② 자신을 칭송하며 죄를 청하는 자객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금을 내어 주'는 모습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비범함을 인정해 주는 이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어찌 가부를 이렇듯 업수이 여기리오?'라며 태부인이 며느리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는 것에서, 주인공이 가부장제하의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자신이 '표를 올려' 입장을 전달해도 '황상이 반드시 대원수의 말을 좇으실' 것이라는 장연의 말에서, 주인공이 국가적 차원에서 능력을 공고히 인정받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어.
- ⑤ 장연이 자신을 '하찮게 여'진다고 말하며 원수가 장연을 '군법'으로 다스린 것에서,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여겨 그를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문학 : 현대시 — 작품 적중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신경림의 「길」을 공통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A]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B]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C]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D]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 이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E]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F]

- 신경림, 「길」 -

2022 이감 시즌5 7차

(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 이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 신경림, 「길」 -

문학 : 현대시 — 선지 적중

- 「길」에 제시된 시적 상황이, 화자(시인)가 의도성을 지니고 배치한 것임을 짚는다는 점에서 <보기> 문항의 취지가 유사하며, <보기> 문항 정답 선지의 판정 논리가 일치함
- 모의평가 26번 문항의 정답 판정과 관련하여 이감 모의고사에서 해당 시구의 올바른 의미를 제시하였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낸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서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하여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 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 ④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 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26.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좇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 ③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를 [D]에서 밝히고 있다.
- ④ [E]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비되고 있다.
- ⑤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2022 이감 시즌5 7차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인은 일반적 인식에서 탈피한 전복적 발상을 통해 시적 의미를 드러내곤 한다. 이때 인식의 전복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표층에서 심층으로 통찰의 깊이를 더하며 시적 의미를 심화하는 것이다.

- 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는 것에서, 일반적 인식을 벗어나 '길'을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발상을 엿볼 수 있군.
- ② '길'이 사람에게 '낭패'를 겪게 해 '슬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일반적 인식을 탈피한 발상의 결과로서, 시련을 통해 세상살이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전복적 발상의 결과를 다시 전복하는 구조를 통해 통찰의 깊이를 더한 것이라 볼 수 있군.
- ④ '길의 뜻'은 인식의 전복을 거듭한 끝에 '사람들이' 얻게 된 최종적 깨달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시련에 맞서 이를 극복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겠군.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이 보이는 태도를 통해, ㉡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한 이의 내면 상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은 대상과 주체를 동일시하여, ㉡은 대상과 주체를 전도하여 나타냄으로써 주체가 느끼는 내적 갈등을 내비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대상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 순응하는 삶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대상에 대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미움으로 가득 찬 세태에 대한 고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대상이 가진 긍정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문학 : 고전시가 — 작품과 선지 적중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이현보의 「어부단가」를 공통으로 다루었음
- 「어부단가」에서 드러나는 표현상 특징과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부분이 유사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1 2차 / 시즌5 5차
2022 시즌3 간쓸개 01 / 시즌4 간쓸개 02
2022 시즌5 간쓸개 05 / 간쓸개 에센셜 02

(가)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 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가 [A]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하여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은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자연 경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은 유사한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제1수>

굽어보면 천심 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제4수>

- 이현보, 「어부단가」 -

3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반어적인 방식으로 삶의 지향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부각한다.
- ③ <제3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제2수>가 제시한 공간에서의 삶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 ④ <제4수>에서는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제5수>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제1수>에서 제시한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문학 : 고전시가 — 선지 적중

- 「어부단가」에서 말하는 ‘은자’의 내용이 매우 유사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1 2차 / 시즌5 5차
2022 시즌5 간쓸개 05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 형상’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여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 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의 ‘어부’는 ‘심장 흥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세’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군.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복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 ③ (가)의 ‘일엽편주’와 (나)의 ‘소정’은 화자가 소박한 뱃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부 형상 관련 소재라고 할 수 있군.
- ④ (가)의 ‘녹류에 고기 꿰어’에는 어부의 삶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통해 유유자적한 삶이, (나)의 ‘그물로’, ‘수없이 잡아 내어’, ‘실컷 먹은’에는 뱃놀이의 여러 상황들이 연결되어 흥취를 즐기는 삶이 나타나고 있군.
- ⑤ (가)의 ‘어부’는 강호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고, (나)의 어부는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출하고 있군.

2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만첩청산’은 세속과의 거리를 환기함으로써 화자가 ‘강호’에서의 ‘무심’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은거하는 삶을 노래한 시가에서는 공간의 속성과 그에 대한 태도를 통해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의 공간은 세속과 단절되어 현실적으로는 위태롭거나 초라할 수 있는 곳들이지만, 화자는 오히려 이러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세속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머무는 공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고결한 은둔자로서의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 ③ (가)의 화자가 달빛 아래 더욱 깨끗하게 보이는 ‘강호’에서 ‘무심’함을 느끼는 데서, 자연 속에 은거하며 고결한 은둔자로 지내는 화자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 21 [A]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A]와 <보기> 모두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유유자적한 생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22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③ <제1수>의 ‘인세’를 이어받아 쓰인 <제2수>의 ‘심장 흥진’을 통해, ‘어부의 생애’를 살아가려는 화자가 속세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문학 : 고전시가 — 내용 부분 일치

- 평가원에서 제시한 「소유정가」 지문과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박인로의 「사제곡」 지문으로 다루었음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강대 3차
2022 이감ON 8차

추월(秋月)이 만강(滿江)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 달인 게오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月宮)에 올랐는 듯
물외(物外)의 기이한 경관 넘쳐도록 보이도다
청경(淸景)을 다투면 내 분에 두랴마는
즐거도 말리는 이 없으니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㉔ 아이야 닛 들어라 만조(晩潮)에 띄워 가자
푸른 물풀 위로 강풍(江風)이 짐짓 일어
귀범(歸帆)을 재촉하는 듯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배 탄 신선된 듯
연파(煙波)를 헤치고 월중(月中)에 돌아오니
㉕ 동파(東坡) 적벽유(赤壁遊)*인들 이내 흥(興)에 미치겠는가
강호 흥미(興味)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 박인로, 「소유정가」 -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② (나)의 '추풍'은 뱃놀이의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 현상이고,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 가는 자연 현상이라 볼 수 있군.

석양이 지는 때에 강풍(江風)이 건듯 불어 돌아가는 돛을 재촉하는 듯

- ㉑ 앞산이 아득하더니 홀연 뒷산 보이는구나
잠깐 사이 날개 돌아 연잎 배*에 올랐는 듯
소식의 적벽(赤壁)*인들 이내 흥에 어찌 더하며
장한 강동거(張翰江東去)*인들 오늘 경치에 미칠런가
㉒ 물가 삶이 이렇거든 산의 삶이 다를조나
산방(山房)에 가을 깊으니 회포를 둘 데 없어
운길산 돌길을 막대 짚고 쉬어 올라
마음대로 거닐면서 원숭이 학을 벗을 삼아
장송(長松)을 비기어 사방을 돌아보니
천공(天工)이 재주 부려 산빛을 꾸미는가
㉓ 흰 구름 맑은 안개 편편(片片)이 떠서 날아
높으랴 낮으랴 봉봉 곡곡(峰峰谷谷)이 면면에 벌였거든
서리 찬 단풍이 봄꽃보다 붉었으니
금수 병풍(錦繡屏風)을 첩첩이 둘렀는 듯
㉔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하여 보이누나
힘센 이 다투면 내 분에 올까마는
급할 이 없으며 나도 두고 즐기노라

(중략)

-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

18. ㉑~㉔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속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② ㉒: 배에 탄 화자의 눈에 보이는 광경의 변화를 통해 배의 속도감을 암시한다.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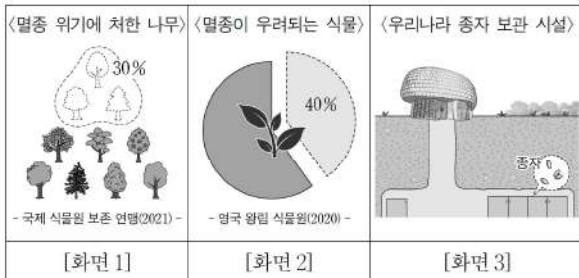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발표 혹은 강연 형식에서 말하기 방식(말하기 계획)과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친숙한 사례로 개념 간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중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이어질 발표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보여 준 화면이다.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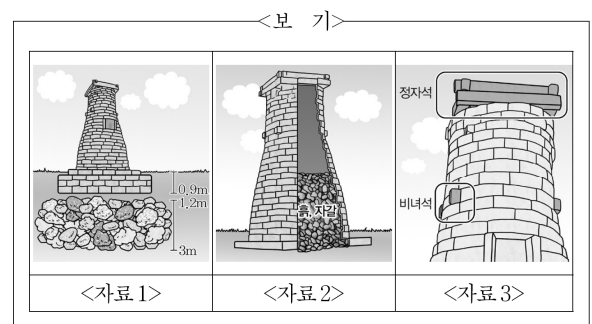
- ① [화면 1]은 매년 나무 종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② [화면 1]은 멸종 위기의 나무 종 중에서 종자가 보존되고 있는 종의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③ [화면 2]는 전체 멸종 우려 종에서 식물 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④ [화면 3]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자를 지하에 보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 ⑤ [화면 3]은 지하 종자 저장고의 위치가 종자의 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는 자료로 ㉠에 제시하였다.

2022 이감 시즌4 2차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권유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 ③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6.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첨성대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돌들 사이의 틈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첨성대의 기반 공사가 이뤄져 있는 깊이를 알려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첨성대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첨성대 상부에 안정성을 더하는 요소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첨성대의 원통부가 아래보다 위가 좁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발표 혹은 강연 형식에서 청중의 질문을 유추하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7. 다음은 청자와 발표자가 나눈 질의응답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청자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A]

발표자: 그 내용은 발표에 없었네요. 추가로 그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 ① 종자 금고는 현재 두 나라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나라의 종자 금고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② 기탁받은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자를 기탁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③ 현재 보관 중인 종자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종자 금고에는 우리나라 종자만 보관하나요?
- ④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 종자를 보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정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 ⑤ 종자 금고에 보관된 종자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반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반출했던 경우가 있나요?

2022 이감 시즌4 2차

37.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사서에 따르면 첨성대는 779년에 규모 6.5로 추정되는 지진을 겪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2016년에 규모 5.1과 5.8의 두 차례 큰 지진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 ① 첨성대의 돌들을 접착하지 않고 엮갈려 쌓았다고 하셨는데, 접착하지 않고 어떻게 돌들이 고정될 수 있었나요?
- ② 첨성대 외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전통 건축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건축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③ 첨성대 아래 땅속에는 자연석들을 채워 넣은 기반 공사가 이뤄져 있다고 하셨는데, 자연석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 ④ 첨성대가 여러 차례의 지진을 겪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인가요?
- ⑤ 첨성대의 정자석과 비너석은 상부의 돌들을 눌러 준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무게로 누르는 것이기에 돌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화법과 작문 : 작문-화법 통합 — 지문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청소년의 소비 방식에 관한 지문을 다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5 4차

(가)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가 우려된다

일요일 오후에 방문해 본 우리 학교 근처의 한 ‘팬 상품’ 판매점. 옷이나 소품 등 연예인과 관련하여 판매되는 상품인 팬 상품을 사려는 청소년들로 북적였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팬 상품의 인기가 뜨겁다. 국내 팬 상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200억 원으로 2014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충동적으로 팬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 ㉠ 2020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67%가 충동적으로 팬 상품을 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일회성 소비는 잘못된 소비 습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과시적 소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학자 유△△ 교수는 “청소년의 과시적인 팬 상품 소비는 남과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의 그릇된 발현이다.”라고 그 원인을 밝혔다. 과시적인 팬 상품 소비는 물질적인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팬 상품을 소비하는 일 역시 우려된다. 1학년 정○○은 “친구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으면 소외감을 느낄까 봐 산 적도 많아요.”라며 인터뷰 과정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팬 상품 소비에 대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요구된다. 정신과 전문의 박□□의 저서 『청소년의 팬 상품 소비문화』에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이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팬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소비 방법에 관한 강연에 친구가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월말이면 용돈이 다 떨어져 힘들어하곤 했는데, 이런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에서는 비합리적인 소비란 자신의 소득과 물건의 비용, 효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로, 모방 소비, 과시 소비, 충동 소비, 과소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래 집단을 모방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지출 가능 금액 확인 및 순위 정하기, 후보 상품 평가하기, 상품 구매하기, 구매 과정 돌아보기 등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알려 주었다.

강연을 들으며 나의 소비 습관을 떠올려 보았다. 친구들을 따라 내게는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했다가 결국 방치한 적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월말에는 교통비같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용돈조차 남지 않았다. 강연에 따르면 나는 충동 소비, 모방 소비, 과소비를 하고 있던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강연에서 들은 합리적인 소비의 네 단계를 지키려 노력했다. 그랬더니 구매 과정 돌아보기의 단계가 큰 도움이 되어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구매 과정을 성찰하게 되면서 친구들의 물건을 볼 때마다 그 물건이 나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친구들을 따라 물건을 사고 싶다는 충동이 줄어들었고 용돈을 아끼고 저축할 수 있었다.

[A]

화법과 작문 : 작문-화법 통합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내용 조직 방식과 글쓰기 계획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화 표지로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드러낸다.
- ② 특정 이론을 활용하여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제시한다.
- ③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조하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⑤ 중심 화제에 대한 인식을 시기별로 제시하여 인식의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

39.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가 (가)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팬 상품의 인기 ㉠
- 팬 상품 소비에서 우려되는 점
 - 충동적 소비 ㉡
 - 과시적 소비 ㉢
 -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소비 ㉣
- 팬 상품 소비의 바람직한 태도 ㉤

- ① ㉠: 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팬 상품 판매점의 분위기를 제시하였다.
- ② ㉡: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충동적인 팬 상품 소비 태도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 ③ ㉢: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팬 상품을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행위의 심리적 원인을 제시하였다.
- ④ ㉣: 학생을 인터뷰하여 팬 상품을 소비하는 이유가 소외감과 관련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⑤ ㉤: 관련 저서를 근거로 들어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소비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2022 이감 시즌4 1차

39. (가)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음료 공장 증설에 대한 마을 주민들과 군청의 입장 차이를 대조한다.
- ② 2문단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용도를 분류하여 제시한다.
- ③ 2문단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 사이의 2차 협상이 마련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제시한다.
- ④ 3문단에서는 1일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이유를 분석한다.
- ⑤ 4문단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오래된 갈등이 해소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시한다.

38.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예정된 협상에서 다뤄질 안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야 겠군.
- ② 음료 회사가 공장 증설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밝혀야 겠군.
- ③ 이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새로운 협상을 개최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가 기울인 노력에 대해 밝혀야 겠군.
- ④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가 희망하는 1일 지하수 취수량이 각각 얼마인지 제시해야 겠군.
- ⑤ 마을 주민들과 음료 회사의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군청 관계자의 전망을 제시해야 겠군.

화법과 작문 : 작문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조언에 따라 끝부분을 적절하게 추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회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추가할 마지막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회장: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름 짓기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밝혀 주면 좋겠어. 또한 2문단에서 언급한 효과와 관련하여 공모전 참여를 권유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 ① 이름 짓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함을 유의하도록 한다.
- ② 이름 짓기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름 짓기의 효과를 이해하고 그 방법을 활용해 보자.
- ③ 지나치게 생소한 이름은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체육 대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이름을 지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 ④ 이름 짓기는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올해 새롭게 바뀐 체육 대회에 어울리는 참신한 이름이 지어진다면 체육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⑤ 이름 짓기는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새로운 체육 대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22 이감 시즌5 5차

44. 다음은 초고를 읽은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고려해서, 상황에 적합한 각각의 스트레칭을 수행해 볼 것을 권유하며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 ① 그러므로 때에 적합한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칭을 미리 알아볼 것을 권한다.
- ② 따라서 운동 전후와 일상생활 중에 하는 스트레칭은 먼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한 후에 수행해야 한다.
- ③ 그러므로 운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운동을 끝낸 후나 일상생활 중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 볼 것을 권한다.
- ④ 특히 스트레칭은 운동 중의 부상을 방지하므로 운동 전에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충분히 수행할 것을 권한다.
- ⑤ 따라서 운동 시작 전과 후,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는 각각 그 상황에 맞는 스트레칭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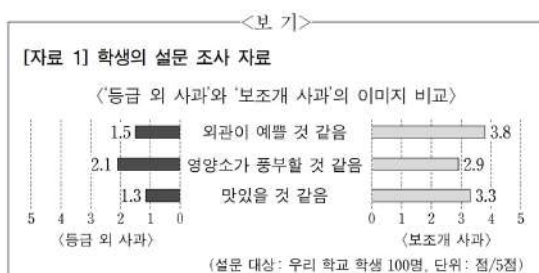
화법과 작문 : 작문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5 5차

45. <보기>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2] 보고서 자료

<이름 짓기의 사례>

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	G4C
목적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홍보	각종 정부 민원을 24시간 처리하는 누리집 홍보
의미	국내 구석구석에 가 볼 만한 장소가 많음.	시민을 위한 정부 (Government for Citizen)
결과	국내 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데 기여함.	이름이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생소해 의미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민원24'로 바꾸자 인지도가 향상됨.

- ① [자료 1]: '등급 외 사과'보다 '보조개 사과'가 외관과 맛 항목의 점수가 높다는 점을,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근거로 2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② [자료 1]: '보조개 사과'와 '등급 외 사과'의 영양소 항목에서 점수 차이가 가장 작다는 점을, 이름 짓기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근거로 2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③ [자료 2]: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이름이 관광객의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잘 지어진 이름이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사례로 3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④ [자료 2]: 'G4C'라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름이 지나치게 생소하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4문단에 활용해야겠어.
- ⑤ [자료 2]: '민원24'라는 이름이 누리집의 인지도를 향상했다는 점을,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로 4문단에 활용해야겠어.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신문 기사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에 사용되는 근육과 그에 연결된 신경의 반응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몸의 민첩성을 향상시킨다. 본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본운동의 동작과 유사한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단거리 달리기 하기 전에 제자리 뛰기, 수영을 하기 전에 어깨 돌리기 등의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기록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

ㄴ. 연구 자료

스트레칭과 운동 효율에 대한 연구 154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정적 스트레칭이 힘과 민첩성, 지구력 등을 감소시켜 운동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정적 스트레칭을 오랫동안 수행할 경우, 근육이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져 오히려 원래의 길이보다 더욱 수축하게 되어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ㄷ. 전문가 인터뷰

"정적 스트레칭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으며 부상의 위험이나 통증의 정도가 낮아 몸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근육을 이완한 채로 깊은 호흡을 계속하면 긴장과 불안 감소라는 심리적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몸과 정신을 가다듬을 때 적합한 스트레칭입니다."

- ① ㄱ을 활용하여, 동적 스트레칭이 몸의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2문단의 내용에 추가한다.
- ② ㄱ을 활용하여,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에 대한 설명을 3문단의 내용에 보강한다.
- ③ ㄴ을 활용하여, 운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5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 ④ ㄷ을 활용하여, 정적 스트레칭을 동적 스트레칭과 비교하고 있는 4문단의 내용을 보강한다.
- ⑤ ㄷ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5문단의 내용에 보충한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지문 및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지문에서 합성어의 분류에 대해 다루고 융합 합성어를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 지문에서 합성어의 분류에 대해 다루고 합성어를 파악하는 문제를, 언어와 매체 220제에서 다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먼저 **구성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쓸 만한 가치가 없다.'를 뜻하는 ㉠ '쓸모없다'는 명사 '쓸모'와 형용사 '없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주고, '손을 마주 잡다.'를 뜻하는 ㉡ '손잡다'는 명사 '손'과 동사 '잡다'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로 하다.'를 뜻하는 ㉢ '자랑삼다'는 명사 '자랑'과 동사 '삼다'가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여 준다.

한편 의미적 측면에서 합성 용언은 그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쓸모없다'는 구성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 **목말라** 있다.
- 그는 이 과자를 간식으로 ㉡ **점찍어** 두었다.
- 그녀는 요즘 야식과 ㉢ **달뺏고** 지내고 있다.
-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 **늑술지** 않았다.
- 그녀는 최신 이론에 마침내 ㉤ **눈뜨게** 됐다.

-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한다.
- ㉤ : 구성 요소의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고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2022 이감 시즌1 1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어근과 어근의 배열 방식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라도 합성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성어가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를 경우 통사적 합성어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가령 어미 없이 어간과 어간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 어근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를 지니고 각자의 의미를 유지한 채 결합한 합성어를, 종속 합성어는 ㉡ 어근들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지만 한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되어 수식 관계로 결합한 합성어를 가리킨다. 융합 합성어는 ㉢ 어근들의 결합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의 예로

35. 윗글을 바탕으로 ㉠~㉢에 해당하는 예를 다음에서 찾아 바르게 제시한 것은?

-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혼났다.
-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낯설었다**.
- 요사이** 누나는 감기로 앓아누웠다.
- 이곳은 우리가 **밤낮** 다니던 길이다.
- 큰 폭발로 건물 전체가 **쑥발**이 되었다.

- ㉠의 '오르내리다'는 ㉠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의 '낯설다'는 ㉠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의 '요사이'는 ㉡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의 '밤낮'은 ㉡과 ㉢에 해당하는 예이다.
- ㉤의 '쑥발'은 ㉡과 ㉢에 해당하는 예이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의미한다. 이는 ㉠ 주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구조, 용언의 관형사형이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용언의 어간과 어간 사이를 연결 어미가 이어 주는 구조, ㉡ 부사가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구조,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등으로 나타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는 다른 것을 말한다. ㉢ 용언의 어간이 연결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었으며, 문제의 형태와 묻는 방식과 지점이 모두 동일함
- 지문에서 어미에 대해 다루고 어미를 파악하는 문제를, 언어와 매체 220제에서 다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5 3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뉘어 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 됐을 가능성이 높다.
- ㉢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 가셨구나.
- 항구에 ㉤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38.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어미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로 나뉘니다. 어말 어미는 다시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뉘고요. 그럼 다음의 ㉠~㉣에 쓰인 어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너도 정말 ㉠ 슬뽀했구나.
- 이것은 나에게 과분한 ㉡ 것이오.
- 나는 여러 운동을 다 ㉢ 해 보았다.
- 할아버지께서 ㉣ 일어나시려고 한다.
- 그들이 이미 ㉤ 돌아섰음을 알고 있었다.

학 생 : [A]

- ① ㉠에는 종결 어미 앞에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 ② ㉡에는 하나의 선어말 어미와 하나의 종결 어미가 쓰였어요.
- ③ ㉢에는 선어말 어미 없이 하나의 연결 어미가 쓰였어요.
- ④ ㉣에는 연결 어미 앞에 하나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요.
- ⑤ ㉤에는 하나의 선어말 어미와 하나의 전성 어미가 쓰였어요.

어미와 조사는 모두 문장 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로,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서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어미는 어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말로, 용언 내에서 어느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단어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로, 크게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 문장을 다음 문장과 연결시켜 주는 연결 어미,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전성 어미로 나뉘 볼 수 있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이는 어미로, 어말 어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선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높임, 시제, 그리고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선어말 어미는 어간이나 어말 어미와는 달리 서술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문장에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부정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른 문장을 찾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 부정 표현을 파악하는 문제를, 언어와 매체 220제에서 다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부정에는 '안'이나 '-지 않다'를 사용하는 '의지 부정'과 '못'이나 '-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능력 부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이나 '-지 않다'가 사용된 부정문이 주어의 의지와 무관한 '단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안'이나 '-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에는 주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또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주어가 유정물이더라도 '나는 깜빡 잊고 약을 안 먹었다.'에서와 같이 '안'이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

- ① [㉠: 옛날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 주문한 옷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 ② [㉠: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 ③ [㉠: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 ④ [㉠: 내 얘기에 고모는 놀라지 않았다.
㉡: 이 물질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 ⑤ [㉠: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는 않네.
㉡: 아주 오래전만에 비가 안 온다.]

2022 이감 시즌5 4차 2022 언어와 매체 220제

37.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부정문은 형태에 따라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또한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 능력 부정, 단순 부정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조건	부정문
짧은 부정문, 의지 부정	나는 그 사람을 안 만날래.
긴 부정문, 능력 부정	㉠

- ① 아무도 그 바위를 들지 못했다.
② 밥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다.
③ 지금 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④ 너희들의 그런 태도는 옳지 못해.
⑤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

39.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1>

부정문은 그 쓰임에 따라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에 따라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낼 때나 ㉠ 주체의 의지와 관계 없이 긍정문을 단순히 부정할 때 쓰인다. 한편, '못' 부정문은 ㉡ 주체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낼 때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나는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 비는 여전히 안 오고 있었다.
㉢ 이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 네가 그 팀을 응원하지 않았어?
㉤ 우리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등 음운 변동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4 2차

39.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학생: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8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조항에서 ‘ㄱ, ㄴ, ㄷ’ 옆의 괄호 안에 다른 받침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ㄴ(ㄴ, ㄷ, ㅈ, ㅊ, ㅌ, ㅎ), ㄹ(ㄹ, ㄹ, ㅂ, ㅅ, ㅆ, ㅍ, ㅍ, ㅍ)’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발음이 'ㄱ, ㄷ, ㅂ'이 아니라
라도, 음운 변동의 결과로 그 발음이 [ㄱ, ㄷ, ㅂ]으로
바뀌면 비음화 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거예요.

학생: 아, 그렇다면 [A]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거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밖만[방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② '쪽넌다[퐁닐따]'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 ③ **꺾[감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④ '걸늘다[견늑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 ⑤ '호박익[호방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37.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값**하다 → [가파다] ㉡ 결낫질 → [전난질]
 ㉢ 비늘잎 → [비늘립] ㉣ 옆홀이 → [여폴치]
 ㉤ 직행열차 → [지캐널차]

- ① ㉠과 ㉡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과 ㉡에서는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③ ㉠과 ㉡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④ ㉠과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 ⑤ ㉢과 ㉡에서는 각각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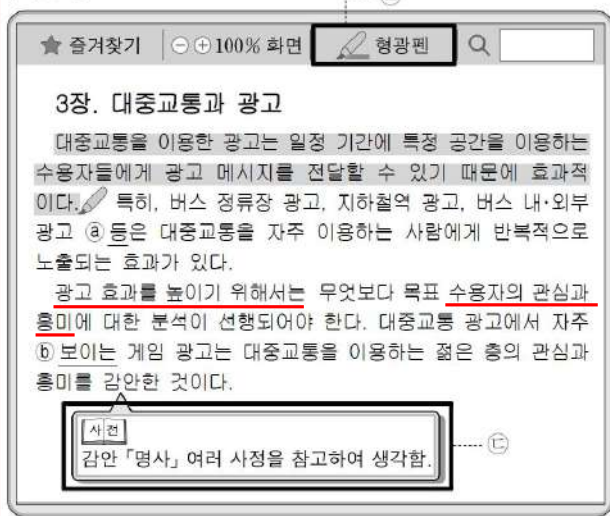
언어와 매체 : 언어-매체 통합 — 지문 및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광고 효과를 높이는 전략에 대해 유사하게 다룸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매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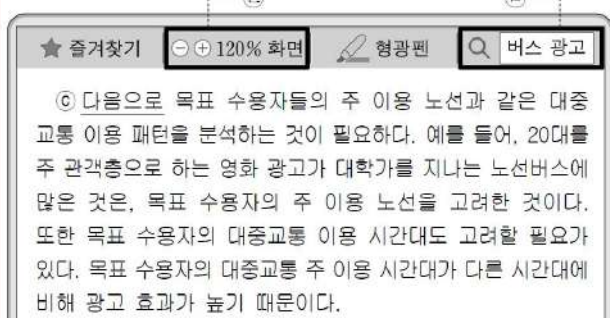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 이감 시즌4 1차

[화면 2]



[화면 3]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의 종류가 어렵임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② ㉡: 젊은 층의 게임 광고 수용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③ ㉢: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요소가 더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④ ㉣: 목표 수용자 분석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 ⑤ ㉤: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대신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나타난 '광고의 설득 전략'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고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워 모방 심리를 자극하거나 비교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설득 전략을 구사한다. 또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장점을 열거하여 제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미 있는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제품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등의 설득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광고의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① (가)에서 '알고 계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이겠군.
- ② (가)에서 제품에 함유된 성분들을 열거한 것은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겠군.
- ③ (나)에서 자사의 기존 제품에 비해 보습력이 향상되었음을 밝힌 것은 광고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이겠군.
- ④ (나)에서 수분 알갱이들이 제품에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웃음을 유발하여 제품에 대한 호감을 높이려는 의도이겠군.
- ⑤ (가)와 (나)에서 인기 연예인을 등장시킨 것은 소비자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이겠군.

42. (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제품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도치의 방법을 활용하여 광고 제품을 사용해 볼 것을 강조해 전달하고 있다.
- ③ ㉢: 대립되는 내용을 잇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광고 제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명사로 끝을 맺어 광고의 내용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 권유의 표현을 사용하여 수용자에게 광고에서 제시된 특정 행동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 매체 — 문항 유사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매체의 특성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제를 다름
- 평가원과 이감 모의고사에서 스토리보드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영상 제작 계획’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3.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블록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45.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얹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	
③ 지혜가 바라보던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교실에서 촬영해야겠어.	
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	
⑤ 우리가 다 같이 등장해서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나눠서 말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u>자막</u> 을 삽입해야겠어.	

2022 이감 시즌4 3차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블록정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가)는 대화 참여자가 영상 제작을 의뢰한 사람의 연락처를 하이퍼링크로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의 게시 글 작성자가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수용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나)는 수용자가 한글의 자음자만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에서 간결하게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나)는 게시 글 작성자가 댓글을 통해 스토리보드에 대한 감상을 수용자에게 직접 묻고 있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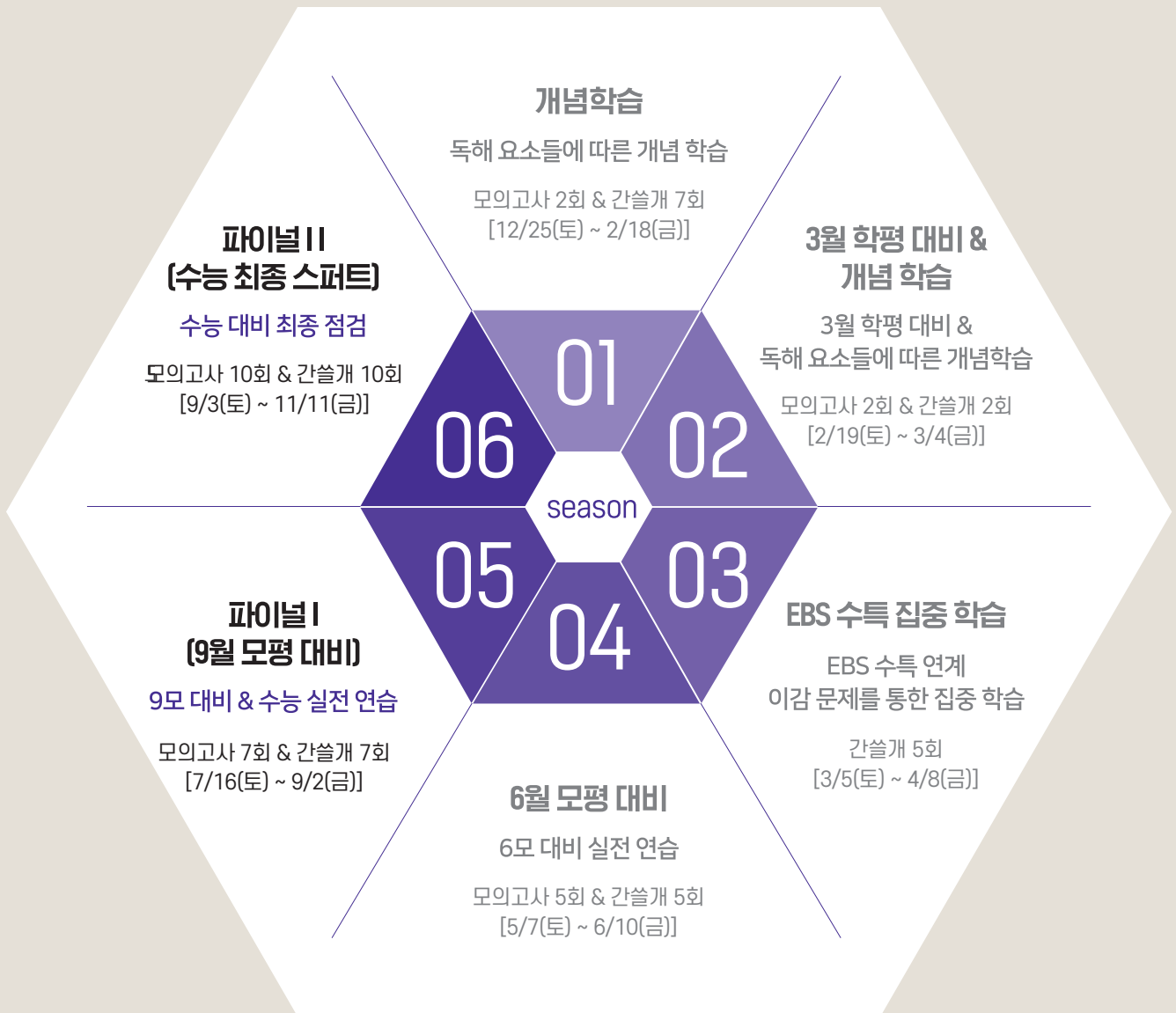
(나)

고등학교 영상 동아리 카페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주간 캠페인 영상 스토리보드		
장면		소리
#1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포함된 SNS 게시물. 사진에 학생들, 체크 카드가 함께 찍힘. 잠시 후 댓글이 달림. 이때 대사가 실림.	【배경 음악】 밝은 분위기의 연주곡. 대사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연주곡이 뜰 끊김. 【대사】 내가 다니는 학교 이름은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안 거지? 당황스러워.
#2	#1의 사진, 학생증과 체크 카드 주변만 밝게 하고 나머지는 어둡게 처리.	【내레이션】 학생증을 통해 이름, 학교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 체크 카드를 통해 금융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3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광등 기호 등장. 이어서 자막.	【효과음】 사이렌 소리. 【내레이션】 (사이렌 소리 멈추면) SNS에 올리는 사진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물건이 찍히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3학년도 이감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문을 보는 방법부터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연습까지!
평가원의 출제 코드를 읽는 안정된 실력을 완성합니다.

36주간의 커리큘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길 3 3층(양재동, 아산벤처타워)
T 02-567-9507 F 02-567-9509 www.yigam.co.kr